

프리드리히 키틀러
음악과 수학

제1부 헬라스
제2권 에로스

박언영 옮김



매미
게겐슈탈트

음악과 수학

제1부 헬라스

제1권 아프로디테

0 사랑에 앞서 (음악과 수학 제1부 제1권 아프로디테)

1 음악 (음악과 수학 제1부 제1권 아프로디테)

2 음악이 수학을 부릅니다 (음악과 수학 제1부 제1권 아프로디테)

제2권 에로스

3 에로스

제2부 로마 아이테르나

제1권 섹수스

제2권 비르기니타스

제3부 헤스페리아

제1권 민네

제2권 사랑

제3권 섹스

제4부 튜링 시대

프리드리히 키틀러

음악과 수학

제1부 헬라스

제2권 에로스

박언영 옮김

매미

계겐슈탈트

Musik und Mathematik I — Hellas 2: Eros

by Friedrich A. Kittler

Copyright © 2009 Wilhelm Fink Verlag, Paderborn

Ein Imprint der Brill Deutschland GmbH

www.fink.de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25 gegenstalt Verlag, Germany

www.gegenstalt.com

and memi books, Korea

www.memibooks.kr

이 책의 한국어판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사인 핑크 출판사와 독점 계약한

게겐슈탈트 출판사와 도서출판 매미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호받는 출판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The Korean language edition is published in arrangement with and is licensed by Wilhelm Fink Verlag through gegenstalt.

For all rights on images and their usage, we adhered to the original German edition in naming the sources. We made efforts to clarify external image rights and obtained authorizations for their use, if, however, there is any source not correct or not fully specified, we will take corrections upon request and ask for informations respectively.

그리하여 신들에게서 나온 것들도 죽지만, 신들은 아니다

ὥστε θνήσκειν καὶ τὰ θεῶν· θεοὺς δ' οὐ

소포클레스

목차

3	에로스	13
3.0	만드는 자	13
3.0.1	서약	15
3.1	소小아티케에서	17
3.1.1	아테네 학파	20
3.1.1.1	말괄량이 길들이기	23
3.1.1.1.1	아테네가 아이기나를 길들입니다	24
3.1.1.1.2	야만인들 사이의 테미스토클레스	29
3.1.1.1.3	무세이온과 김나시온	34
3.1.2	채소 장수 여자의 아들, 에우리피데스	44
3.1.2.1	이온	46
3.1.2.2	히폴리토스	56
3.1.2.3	헬레네	63
3.1.2.3.1	창녀 헬레네	66
3.1.2.3.2	순결한 헬레네	70
3.1.2.4	원시 기독교인 에우리피데스	81
3.1.2.5	음악이 끝나면	88
3.1.3	《아티케의 어릿광대》 소크라테스	100
3.1.3.1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헤타이라를 뒤쫓고	102
3.1.3.2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에페보스를 뒤쫓습니다	106
3.1.3.3	글자와 음악	114
3.1.3.3.1	님프들 결의 일리소스강 기슭에서	116
3.1.3.3.2	피타고라스에서 테우트까지	127
3.1.3.3.3	필롤라오스의 감옥에서	151
3.1.3.4	음악과 시짓기 속의 신들	162

3.2	아카데미아와 리케이온	176
3.2.1	플라톤	177
3.2.1.1	여행 중에	177
3.2.1.2	무사들의 얇의 숲	179
3.2.1.2.1	두 번째 사과四科Quadrivium	182
3.2.1.2.2	땅 위의 음악	184
3.2.1.2.3	세이렌과 함께하는 하늘의 화성	191
3.2.2	아리스토텔레스와 추종자들	206
3.2.2.1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어나...	206
3.2.2.2	...일하고...	211
3.2.2.2.1	형상과 질료	212
3.2.2.2.2	날소리·음절·단어	218
3.2.2.2.3	동물과 인간	237
3.2.2.2.4	시학	258
3.2.2.2.5	수와 은유	269
3.2.2.3	...죽습니다	282
3.2.3	적대적인 두 형제	284
3.2.3.1	철학과 학문	284
3.2.3.2	타라스의 아리스토크세노스	285
3.2.3.2.1	1개의 삶...	285
3.2.3.2.2	...그리고 두루마리 책 453권	287
3.2.3.3	에우클레이데스	303
3.2.3.4	트란슬라티오 스튜디오 translatio studii	309
4	로마인들 아래에서	317
4.1	신들의 달아남, 아프로디타의 되풀이	317
4.2	트란슬라티오 임페리 translatio imperii	321
4.2.1	기계 무기 전투	322
4.2.1.1	아르키타스에서 아르키메데스로	322

4.2.1.1.1	서쪽에서의 전쟁	322
4.2.1.1.2	동쪽에서의 전쟁	329
4.2.1.2	아르키메데스에서 로마인들로	331
4.2.2	재귀	335
4.3	플루타르코스와 신탁의 쇠퇴	338
4.3.1	추측과 세이렌	338
4.3.2	위대한 판	342
4.3.3	에피쿠로스 무리의 돼지 한 마리	359
4.4	룽고스와 봄	366
4.4.1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	366
4.4.2	그리고 염소들은 사랑을 나눈다네	370
4.4.2.1	꽃 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377
4.4.2.2	모조 씨가 일어서네	380
4.4.2.3	아, 피와 상처로 가득한 아랫도리여	383
0	부록	395
0.1	고맙습니다	395
0.1.1	『음악과 수학』 - 제1부 제2권	395
0.1.2	특수 기호 및 약호	397
0.1.3	도판 출처	399
0.2	연표	401
0.3	도움말	493
0.4	책·악보·지도·음반	494
/	저자명 및 문헌명 원어 표기 찾아보기	531
/	옮긴이 후기	539

일러두기

이 책은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의 『음악과 수학Musik und Mathematik』 제1부 헬라스Hellas의 제2권 에로스Eros(2009)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 사용된 기호에 대한 지은이의 설명은 '특수 기호 및 약호'(397쪽)에 실려 있다. 한국어판에서 원서의 표기 방식에 대응하거나 추가로 적용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문체

지은이의 글은 모두 구어체 높임말로 격식과 비격식을 섞어 옮겼다.

인용된 다른 저자의 글은 맥락에 따라 구어체나 문어체를 선택하여 옮겼다. 운문은 대체로 구어체로 옮겼다. 산문이라고 해도 호소력이 있는 글이나 강의록은 구어체로, 객관적 서술을 중시하는 글은 문어체로 옮겼다.

- 인용문

본문과 각주에 사용된 기메(«…»와 «…»)는 화살괄호(《…》와 〈…〉)로, 독일식 따옴표(„…“와 ‚…‘)는 한국식 따옴표(“…”와 ‘…’)로 옮겼다. 지은이는 신성한 글이나 말을 기메로, 세속적인 글이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하였다. 고대의 글은 대체로 기메로 인용되며, 근대의 글이라고 반드시 세속적 따옴표로 인용되지는 않는다.

- 대문자 및 이탤릭체 강조

지은이가 한 단어의 모든 글자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굵은 글씨**로 나타냈다.

지은이가 이탤릭체로 강조한 부분은 밑줄로 나타냈다.

정관사가 붙어 일반적 개념으로 논의되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 인용문 안의 강조

지은이의 신성한 글 인용문에서 이탤릭체로 강조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지은이의 세속적 글 인용문에서 이탤릭체로 강조되거나 사전적 뜻을 설명하는 부분은 '작은따옴표' 안에 넣었다.

- 괄호 사용

지은이가 사용한 [대괄호]와 {소괄호}는 그대로 옮겼다.

본문과 각주에서 옮긴이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말은 {중괄호} 안에 넣었다.

- 작품 제목

본문에 등장하는 작품의 제목은 낫표로 표시하였다. 단행본으로 발행된 책이나 음악 앨범 등은 겹낫표(「」)를, 비교적 짧은 에세이나 학술 논문, 한 곡의 음악 작품, 강의 등은 홑낫표(『』)를 사용하였다. 각주에 인용될 때는 저자의 사용에 따라 낫표 없이 제목을 옮겼다. 다만 참고문헌 목록에 실리지 않은 저작은 원서 각주에서 제목이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한국어판에서도 이를 낫표로 반영하였다.

- 로마자 병기와 그리스어 처리

독일어에서 외래어로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단어 또는 지은이가 이탤릭체로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옮긴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독일어 개념에는, 괄호 사용이나 띄어쓰기 없이 로마자를 병기하였다.

지은이가 그리스 알파벳으로 표기한 그리스어도 모두 음차하여 그리스 알파벳과 함께 나란히 적었다. 긴 그리스어 인용문은 출처를 통해 원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독성을 고려해 생략하였다.

- 슬래시 기호

슬래시 기호는 원서 그대로 옮겼다. 서로 다른 뜻을 가졌지만 밀접하게 관련된 두 단어를 연결하거나 낱말 쌍을 나열할 때(예: 여대생/남대생), 또는 각주에서 줄 바꿈을 표시하거나 공저자를 나열할 때 등에 사용되었다.

역슬래시 기호는 옮긴이가 추가한 것으로, 한 단어에 둘 이상의 뜻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뜻을 나열하며 사용하였다. (예: 그림\상像\이미지)

- 가운뎃점

지은이가 단어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나열한 단어들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넣어 옮겼다. (예: 낱소리·음절·단어) 원문에서 음절 구분을 위해 사용된 불임표 역시 가운뎃점으로 옮겼다. (예: 그라·포)

- 도판

독일어 원서에서는 본문에서 ‘(그림 XIII)’과 같이 도판을 지시하고, 도판은 별도로 인쇄되어 있다. 한국어판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본문의 도판 지시는 삭제하고 해당 이미지를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였다. 본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도판은 본문 뒤에 별도로 수록하였으며, 때에 따라 원서의 도판을 생략하거나 원서에는 없는 도판을 추가하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추억의 즐거움 속에 머문 적이 없었다. 인상들은 그에게서 순식간에 그리고 생생하게 튕겨 나갔다. 도공의 주홍색 칠, 신들이기도 했던 별들로 가득한 창공, 사자 한 마리가 곤두박질쳐 떨어졌던 달, 망설이는 손끝의 예민함에 닿는 대리석의 매끈함, 하얀 이로 덥석 물어뜯는 것을 좋아했던 멧돼지 고기의 맛, 페니키아어 단어 하나, 투창 하나가 노란 모래 위에 드리우는 검은 그림자, 바다 결 또는 여자 결, 쓴맛을 꿀로 부드럽게 만 들었던 진한 포도주 — 이 모든 것은 그의 영혼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었다. 그는 두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분노와 용기도 알았으며, 심지어 한 번은 가장 먼저 적의 성벽에 올라가기도 했다. 그는 만족을 모른 채, 호기심 가득히, 닥치는 대로, 즐거움이나 즉각적인 침착함 외에는 다른 법칙 없이, 다채로운 지구를 돌아다니며 이쪽저쪽 해안에서 사람들의 도시와 궁전을 바라보았다. 우글거리는 장터에서 또는 꼭대기가 흐릿한 산기슭에서, 분명 사티로스가 살고 있었을 법한 그곳에서, 그는 얽히고설킨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캐묻지 않은 채, 현실을 받아들 이듯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였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조금씩 그를 버리고 떠났고, 끈질긴 안개는 그의 손금 을 지워 버렸다. 밤은 별들이 텅 비었고, 발밑의 땅은 흐릿했다. 모든 것이 멀어지고 아득해졌다. 이렇게 눈이 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크게 소리쳤다. 스토아적인 수치심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고, 헤토르는 명예 를 잃지 않고도 도망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그는 그렇게 느꼈다) 신화적 인 하늘의 공포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세월이 바뀌어 놓을 이 얼굴 또한 볼 수 없을 것이다. 날들과 밤들이 살덩이의 절망 속을 지나갔다. 그러 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놀라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흐릿해진 사물들을 바라보았고, 어떤 음악이나 목소리를 다시 알아볼 때와 같은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즉, 이 모든 것이 이미 그에게 일어난 적이 있었으며, 두려움뿐 아니라 환희, 희망, 호기심으로 이

에 맞선 적이 있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기억의 심연 속으로 내려갔는데, 그 깊이는 그에게 무한하게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지러움 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기억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 기억은 빛속의 동전처럼 반짝였는데, 아마도 꿈속을 제외하면 그가 그 동전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기억이란 이것이었다. 다른 사내아이가 그를 모욕했고,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일을 말했다. 아버지는 마치 듣지 않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두었고, 소년이 이미 은밀하게 원하던, 아름답고 힘이 깃든 청동 단검을 벽에서 집어 들었다. 이제 그는 그 단검을 손에 쥐었고, 소유하자 느끼게 된 놀라움은 그가 겪은 모욕감을 지웠으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목소리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밤은 길을 보이지 않게 했다. 그에게 마법 같은 힘의 예감을 주는 그 단검을 움켜쥔 채, 그는 집을 둘러싼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 바닷가로 달려갔다. 아이아스와 페르세우스가 된 듯 상상하며, 소금기 젖은 어둠을 상처와 전투로 채웠다. 지금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정확히 바로 이 순간의 맛이였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도발하는 말, 거친 싸움, 피 묻은 칼날을 들고 돌아오는 일과 같은 것들은 말이다.

그 기억에 다른 기억 하나가 뒤따라왔다. 마찬가지로 밤이었고, 모험이 눈앞에 있었다. 신들이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첫 여자가 궁륭의 그림자 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돌로 엮인 그물 같은 회랑이나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비탈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다. 왜 이런 기억들이 그에게 떠올랐으며, 왜 그것들이 현재를 앞서 그려 보이는 것에 불과한 듯 쓰라림 없이 떠올랐을까?

그는 깊은 놀라움으로 깨달았다. 이제 그가 내려가고 있는, 필멸자의 두 눈에 드리운 이 밤에도 위험과 사랑, 아레스와 아프로디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예와 육각운의 소리가 (그것을 찾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그를 사로잡았다. 그 소리는 신들이 구해 주지 않을 신전을 지키는 남자들의 소리, 바다 위에서 그리운 섬을 찾는 검은 배들의 소리, 『오디세이

아』와 『일리아스』의 소리였다. 그것들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속 빈 공룡에 서처럼 인간의 기억 속에서 메아리치게 하는 것 — 그렇게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가 최후의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으며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지 못한다.》¹

3.0.1 서약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아테네와 소크라테스에 맞서면서 말이지요. 모든 감각의 이글거림으로서 호메로스를 기념하는 것. 그리스 알파벳 속에서만 그 감각들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 알파벳이 — 모든 문자사에서 처음으로 — 어떠한 그림-의미Bildsinn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필멸자들은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에이도스Eidos —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번역하자면 뜻, 개념, 의미 — 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태양이 아테네에서 나가사키에 이르기까지 발산하며 망막을 오염시켰을 때였지요.² 그리하여 {그 자체가} 신들인 밝은 깨달음Erleuchtung들을 플라톤의 동굴 비유로부터 구제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부과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소제인 타 파이노메나σώζειν τὰ φαινόμενα.³ 무엇보다도 아레스 이후 두 번째 밤, 즉 아프로디타와 함께한 밤을 구해야 합니다.

거품에서 태어난 사랑Liebe이 바다 위로 떠오를 때, 벌거벗은 여자 아울로스 연주자들은 그녀의 도착을 둘러싸고 기쁘게 연주합니다. 사랑이 죽을 때, 몸을 꼭 싸맨 여자 성직자들은 향을 피우며 그녀의 달아남을 슬퍼하며 읊니다.

1 보르헤스, 1964~1966, 9권 9~11쪽. 보르헤스 독일어 번역본, 1980~1982, 6권 9~11쪽.

2 플라톤, 국가, 7권 1, 515e~516a절. 이에 대해 하이데거(1967, 109~144쪽)도 참고하십시오.

3 *{직역하면 '빛나는 것들을 구하기'라는 뜻으로, 플라톤이 제시했다고 전해지는 천문학적 과제를 뜻하는 "현상의 구제"의 고대 그리스어이다. 이는 부드러운 원운동을 해야 할 행성이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구제해야 할 문제로 여겨,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쓰인 말이다.}

(아래) 두 카리테스에게 들어 올려지며 옷을 입은 아프로디테가
로크로이 에피제퀴리오이 푸른 앞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기원전} 460~450년경)
(왼쪽) 왼편의 아울로스 연주자
(오른쪽) 오른편의 향로를 든 여사제

3.1 소소아티케에서

그리스는 땅과 바다가 가장 잘 발달하고 구성된 나라다. 유럽이 다른 대륙을 뛰어넘듯, 그리스는 유럽의 다른 모든 큰 반도들을 뛰어넘는다.
마이아 대백과사전

스스로를 내어 주는 《존재》¹(필롤라오스를 따라 하 에스토ᾶ έστῶ), 그녀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그녀를 일컬어 욕망과 쾌락^{Lust}²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져도 우리는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로디타가 언제나 되풀이된다는 사실은 심지어 아티케에서도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절대로 논의되면 안 될 뿐입니다.

이름부터가 이미 아름다운 젊은이인 필레보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욕망과 쾌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필레보스는 (이렇게 말해서 실례합니다만) 영웅입니다. 그는 욕망^{Lust}과 앎^{Wissen}의 스트레토^{Engführung}³라는 세이렌의 진리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필레보스는 한낮 햇살의 나른함에 잠이 들고, 그의 친구로 등장하는 다른 에페보스에게 말을 넘깁니다. 욕망과 쾌락은 바로 이렇습니다. 낮잠의 꿈⁴, 포도주에 취함⁵, 사랑의 밤 등 속으로 꽤 게으르게 미끄러져 가지요. 반면 소크라테스는 잔치에서든 사랑의 침대에서든 결코 잠들지 않으려 합니다.⁶ 그는 현명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명함의 친구(필로소포스^{φιλόσοφος})로서 젊은 친구들이 연습하여 선보이는 현명함을 요란하게, 허세를 부리며 반박해 보이는 공적인 연극을 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은 절대로 침묵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지요.

1 *{독일어에서 '존재'(Sein)는 중성명사이지만, 저자는 필롤라오스의 여성형 표현을 따라 여성관사(die)를 붙여 사용하였다(2.2.2.2.1).}

2 *{독일어 루스트^{Lust}는 '하고 싶은, 욕망'에서 '느끼는 즐거움, 기쁨, 쾌락'까지 아우르는 일상적 단어이며, 이 책 전반적으로 그리스어 헤도네^{ἡδονή}에 대응한다. 『음악과 수학』 제1권에서는 대부분 '욕망'으로 옮겼으며, 이 제2권에서는 의미의 범위를 드러내기 위해 '욕망과 쾌락' 또는 '욕망과 즐거움'으로 병치하여 옮기기도 했다.}

3 *{스트레토^{stretto}는 푸가^{Fuga}에서 앞 성부의 주제가 끝나기 전에 다음 성부의 주제를 앞당겨 도입하는 기법이며, 이에 대응하는 독일어(^{Engführung})는 '긴밀한 결합'이라는 학술 용어로도 쓰인다.}

4 플라톤, 파이드로스, 259a절.

5 플라톤, 향연, 223b절.

6 향연, 218c와 223c절.

필레보스에게도 이렇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에페보스에게 자신은 욕망과 쾌락에 관한 말을 그저 조심스럽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내세우지만, 그의 단순한 메아리가 이미 그 말을 왜곡하지요. 그 이후로 인용한다는 것은 거짓말하기 — 또는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을 뜻하게 됩니다.

자, 여신 자체부터 시도해 봅시다. 그들은 (필레보스가 말하기를) 그녀를 아프로디타라고 부르지만, 그녀의 가장 참된 이름은 욕망과 쾌락 {헤도네}입니다.¹

Πειρατέον, ἀπ’ αὐτῆς δὴ τῆς θεοῦ, ἣν ὄδε Ἀφροδίτην μὲν λέγεσθαι φησι, τὸ δ’ ἀληθέστατον αὐτῆς ὄνομα ἡδονὴν εἶναι.

지금이나 그때나 철학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여신 자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곧 아프로디타의 이름을 그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경외심이 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일을 매번 두려워합니다.² 하지만 가지각색의 욕망들 — 그러니까 암태지들 사이의 여신 — 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 않고도 질문 잔치로 날 날이 해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³ 이름^{Name}으로서 건드릴 수 없이 신성하게 남아 있는 것을, 개념^{Begriff}이 모독합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 바로 그가 처음으로, 이 두 번째 책의 부제{에로스}를 부과합니다. 아프로디타가 비은폐성^{Unverborgenheit}이라고 불렸듯이, 에로스는 이제부터 관념^{Idee}이라고 불립니다.

1 플라톤, 필레보스, 12b절, 22c, 28b, 30d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남신 제우스는 필레보스의 여신 아프로디타를 마침내 패주시킵니다. 우리가 헤도네{ἡδονή}를 어원학적으로 정확하게 <달콤함>으로 번역할 수 있다면(상트렌, 1999(2), 헤도마이ῆδομαι 항목), 많은 것이 다시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욕망과 쾌락Lust>은 라틴어 라스키부스^{lascivus}{음란한, 사치스러운}와 동일한 어근에 속합니다.

2 플라톤, 크라티로스, 407d절.

3 플라톤, 필레보스, 12c절. 이에 대해 아울루스 겔리우스(아테네의 밤, 9권 5장 7절)를 참고하십시오. 한참 나중에 타르소스의 크리시포스라는 한 스토아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 이론을 훨씬 능가하는 좋은 옛 고유명(오노마 퀴리온^{ὄνομα κύριον})을 새로운 일반 개념(일반 명사){노멘 콤무네^{nomen commune}}과 엄격히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요하네스 로만, 1965, 269쪽). 이는 후대의 철학자들이 여신들과 남신들을 숨기기 훨씬 쉽게 만듭니다. 아프로디타가 고유명^{ὄνομα κύριον}으로 전설에서 직접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 소크라테스적으로 거짓되게 — 일반 개념{일반 명사}{오노마 프로세고리콘^{ὄνομα προσηγρικόν}}으로서의 <욕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크리시포스는 우리의 어머니, 아들, 딸들에 관해 그 자리에서 하룻밤 잠을 자며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아티케에서는 저녁이 되어서야, 늙은 여자 농부들이 가난한 오두막에서 나와 바위 해변으로 왔습니다. 에우보이아의 거친 절벽을 남쪽으로 끌어안은 한 작은 섬 위로, 태양이 기울며 소금 바다로 뚝 떨어졌습니다. 길게 뻗은 황금빛 물길은 수평선을 향해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저 늙은 여인들은 검고 긴 속치마를 목까지 물에 담갔습니다. 그들은 젖어 달라붙은 천 아래의 몸을 씻기 위해 비누에 모래를 섞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리스 정교회적 순결함은, 당시 우리 둘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더 이상 대그리스와 스파르타에서처럼 춤추고 울러 퍼지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 생각해 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독일인들이 이미 여러 번 실패해 온 일입니다. 레싱에서 니체에 이르기까지, 이 목사 아들들은 언제나 사랑 앞에서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성당지기 아들 하이데거 역시 사포를 《노래하는 사랑의 영웅》으로 찬미한 「서구의 대화」 한 편을 남기기는 했지만,¹ 생전에는 출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학파가 — 김나지움(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 승리했습니다. 술잔치나 학교 연설에서 이따금 에로스가 반신半神으로 경배받기는 하지만, 아프로디타는 더 이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여자들은 — 그리스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 모두 시민권이 없습니다.² 그녀들은 세계정신(Weltgeist)조차 해석할 수 없는 뒤채 속에서 부재합니다. 헤겔이라면 물론, 〈여성형의die〉역사Geschichte가 어떻게 자신에게 흘러들어 왔는지를 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 에스토à έστώ, 《존재die Sein》, 그녀는 오로지 늘 그리고 느닷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자로부터 시도해 봅시다.

1 마르틴 하이데거, 2000, 115쪽.

2 니콜 로로, 1992, 30~37쪽.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이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의 주문으로 부인되는지는 크리스티네 슈누어/레드포드의 『고전기 아테네의 여자들. 사회적 공간과 실제 이동의 자유』(베를린, 1996)가 잘 보여 줍니다. 이 성실한 박사 과정 학생은 아테네 여자들의 그러한 제한적 이동의 자유를 스파르타의 여자들과 비교해 볼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코라이와 코로이가 자유롭게 함께 놀았습니까? 언제 그들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었습니까? 그리고 왜 아테네 코로이는 코라이를 남치하면 안 되었습니까?

오 그대 운명의 목소리여, 방랑자의 길이어!
 푸른 학교에서,
 저 멀리서, 하늘의 꿈속에서,
 맑은 기운의 구름이
 검은지빠귀 노래처럼 울리네.
 신의 현존재, 천동에 의해 잘 조율되어.
 훔덜린, 그리스

폴리스Polis — 도시이자 국가 — 로서의 아테네는 아프로디타를 배제합니다. 성벽 밖, 즉 일리소스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여자들의 몸 풍경으로 이미 예감했던¹ 저 건물 없는 《정원》에서만, 가장 위대한 여신에게 바쳐진 숲들과 상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아크로폴리스 그 어디에도 아프로디타 신전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폐허와 북쪽 산비탈의 한 신성한 구역에서만 옛 풍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² 간통한 여인 파이드라가 한때 아크로폴리스의 남쪽 산비탈에 자신의 난잡한 여신에게 건립했다고 주장하는 신전도³ 고고학적 흔적은 없습니다.⁴ 따라서 증명된 것은 도시 밖에 있는 신성한 두 들판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훌륭한 여행 안내자 파우사니아스가 쓰기를) 여행 안내자와 아테네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아프로디타가 현전하는지를 알려 주는 하나의 전설을⁵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바로 일리소스에서, 성벽에서, 아름다운 파이드로스가 고집만 세고 예감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한 그런 혼란스러운 사랑 전설이⁶ 흔하게 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테네가 알고 있는 아프로디타는 오로지 젊은 남성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금석학적으로 잘 증명된) 여자들의 사私적인 제식 속에만 있습니다. 임신시키기와 순조로운 출

1 테오도르 홉프너, 1938, 158쪽. 클로드 칼람, 1999, 87쪽. ⇐ 1.4.1.

2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이야기, 1권 27장 3절. 이에 대해 로베르 볼랑제(1963, 230~232쪽, 240쪽~과 257쪽)를 참고하십시오.

3 에우리피데스, 히폴리토스, 29~33행.

4 방시안 피렌-델포르쥬(1994, 24~27쪽과 50쪽)가 밝히듯, 전고전기 아테네에서 아프로디타 신전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제는 — 대학교수 자격 논문 기계의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5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이야기, 1권 19장 2절.

6 플라톤, 파이드로스, 229bd절. ⇒ 3.1.3.3.1.

산은 어둡고 모호한 소원이며 또 그렇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¹ 아프로디타가 《여왕》(하 바실레이아^하 βασιλεία)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며 신전, 제식, 축제에 공공적으로 현전하는 스파르타나 타라스와 이루는 대조가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테네가 그리스의 전부는 아니었다. 여성의 위치에 관해서는 아테네의 상황이 이례적이고 심지어 극단적이었다. 여자들에 대한 불신과 연설가 및 법률에서의 여성 혐오는 아테네에서 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아테네의 여성 혐오는 실제로 너무 극단적이어서, 왜 그곳 여자들이 아테네인이라고 불리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따르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전설이 필요할 정도였다. 바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는 아테네의 여자들이 도시 이름을 포세이돈이 아니라 아테나를 따라 짓기로 투표했기 때문에 포세이돈이 분노했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고 한다.”²

호메로스에 의해 노래가 되지 않아 명예 없이 어두운 아테네 창건 시대Gründerzeit³부터 이렇게 아프로디타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기승을 부립니다. 한 여신이 예외적으로 홀로 지배하는데, 그녀는 남편도 없고, 여자의 아기집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남신의 머리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테네인들이 포세이돈의 친부권을 간단하게 부인하며 도시 이름을 결정한 것이 전쟁의 원인 자체를 제공합니다.⁴ 포세이도니아라면, 위대한 서쪽의 딸도시처럼 완전히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신들과 님프들을 사랑하고 임신시키는 한 남신의 이름을 따라서 말이지요.⁵ 그리하여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처녀들의 신전>으로서의 파르테논은 그 빛나는 대리석을 진리 자체에, 즉 이 땅의 여신이 언젠가 사랑받고, 취해지고, 약해지고,

1 유타 스트로스체크(아테네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게 감사드립니다. 존 J. 원클러(1990, 189~202쪽)와도 비교해 보십시오.

2 루이즈 브루이 자이드만, 1992(판텔 펴냄), 339쪽.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나라, 18권 9장.

3 *{본래 19세기 독일 통일을 전후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산업화를 경제사적으로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고대 아테네가 세워진 시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4 반대로 파우사니아스(8권 37장 9절)를 보십시오. 그는 포세이돈과 데메테르가 《헬리오스가 일찍이 보았던 가장 오래된 도시》(8권 38장 1절)인 리코수라의 신이라고 합니다.

5 ⇐ 1.3.1.2.

임신하게 자신을 내맡겼다는 사실에 맞세웁니다. 여기서 무엇이 아름다운 지는, 오직 아테네인들만 압니다. 아테나의 절름발이 남편이자 (『오디세이아』 이후로는) 오쟁이 진 남편 헤파이스토스가 흥분하여 그녀를 쫓다가, 고작 그녀의 옷과 아크로폴리스 회색 바위에 정액을 흘뿌리고 맙니다.¹ 그리하여 첫 왕 에리크토니오스는 그 이름이 말하듯 땅 그 자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 창건 전설로서는 명백히 환영Phantasma입니다.²

이렇게 아테네는 헬라스에서 스스로를 <토박이autochthon>³라고 부르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다른 그리스 부족들처럼) 북쪽에서 이주해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첫날밤도, 임신도, 분만도 없이 생겨났다고 합니다.⁴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가상 처녀의 이름을 따라 부르면서 여자들을 언제나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사랑을 나눴다네》⁵는 갑자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아오른 남신들(포세이돈이나 헤파이스토스)에게서 가까스로 달아나는 아테나 신화Mythos는 그저 《하나의 아포리아Aporie⁶를 표현》할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토착성을 믿는다고 내세우는 하나의 사회가 마주한》〈길 없음Weglosigkeit〉이며,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 이론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⁷입니다. 비궤아테네인들만이 《땅바닥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⁸고 아직 항의를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후고전기 아테네는 바로 이 모순을 위장하기 위해 행동하였으며 — 모든 가치전도⁹를 통해 — 담론 지배권을 쟁취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에우리피데스

1 에우리피데스, 이온, 260~270행.

2 논노스, 디오니소스 노래, 13권 171~179행. 더 일반적으로는 카로이 케레니(2000(21), 1권 98쪽~)를 참고하십시오.

3 *{동일한/자기의(아우토스αὐτός) 땅(크톤xθών)에서 태어났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다.}

4 에리크토니오스 전설에 관해서는 피에르 브뤼레(1987, 13~23쪽)를 보십시오.

5 *{지미 헨드릭스의 「일렉트릭 레이디랜드」의 첫 곡명을 인용한 것이다. 저자는 이를 「음악과 수학」 1권에서 세 쌍의 신적인 연인들을 다루는 부분(1.3.1)의 제목으로 썼다.}

6 *{길(포로스νόρος)이 없음(아-ά-)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특히 철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칭할 때 쓰는 개념이다.}

7 클로드 레비스트로스(1971(3), 238쪽)가 모든 유일 신앙에 맞섭니다.

8 크수토스가 에우리피데스(이온, 543행)에서 외칩니다.

9 *{니체의 표현 '모든 가치의 전도/재평가'(Umwertung aller Werte)에서 가져온 말이다.}

는 치욕스럽게 죽자마자¹ 곧바로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있었던} 무세이온Museion은 오로지 이들만을 — 짐작컨대 어떤 종합 계획에 따라 —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빠짐없이 전승하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무사들의 숲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더 이상 샘터\원천이 아니었고, 아테네 학파가 홀로 그 카논Kanon을 결정했던² 원격 제어되는 대도시 도서관이자 시장 경제였습니다. 그리하여 헤르만 딜스³ 이후 우리는 초기의 수數-사유자Zahlendenker들이 쓴 글들을 그리워합니다. 아무도 아테네 출신이 아닌 이들은 이른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입니다.

3.1.1.1 말괄량이 길들이기

아프로디타에 대한 증오가 이미 아테네의 창건 시대부터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알파벳과 그 사유자 헤로도토스 덕분에 <역사>가 스스로 드러난 이후에야 우리는 그 분노의 원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테네 앞의 푸른 바다 품, 넓고 아름답게 펼쳐진 사로니코스만에는 여신 아파리아에게 신성한 작은 섬 아이기나가 있습니다.⁴ 우리가 섬에 내리자마자 소나무, 소금 그리고 죽은 물고기 냄새가 납니다. 우리 관광객들을 제외하면, 농부들과 당나귀 그리고 늙은 여인들뿐입니다. 하지만 아이기나는 전성기에 인구가 넘쳐났는데, 장거리 무역을 통해 수만 명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⁵ 그래서 이 비좁은 섬은 그리스에서 최초로 귀금속 함량을 규정하는 화폐 본위를 지정하며,⁶ 에우보이아의 옛 해상권을 교체합니다. (유럽은 대담한 작은 섬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미 호메로스의 임신한 어머니도 자

1 에우리피데스에 관해서는, 그가 마케도니아에서 망명 중일 때 어느 질투심 많은 남편의 개들이 그를 (거의 마치 포세이돈의 말이 에우리피데스 자신의 영웅 히폴리토스에게 했던 것과도 같이) 물어뜯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아테나이오스, 학자들의 연회, 13권 597b절).

2 플로랑스 뒤퐁, 1998, 112~115쪽.

3 *{헤르만 딜스가 편집하고 고대 그리스어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펴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김재홍 외 옮김, 파주: 2005)의 초판은 1903년 베를린에서 출간되었다.}

4 하이데거, 2000, 240쪽~. “이미 태고의 신 이름이 아·파리아Α-φαία(나타나지-아니하는 자, 나타남으로부터 피하는 자, 탈현자die Entscheinende)일 때, 이는 알레테이아Αλήθεια*를 말한다. 이렇게 여신 아파리아가 알레테이아의 수수께끼를 보호한다.” *{제우스의 딸이자 진실과 진리의 여신의 이름으로, '나는 잊는다, 감춘다, 숨긴다'는 뜻의 동사 λετολήθω에 부정 접두사 알파α가 더해진 이름이다.}

5 라이문트 솔츠, 2005, 51쪽.

6 헤로도토스, 역사, 6권 127장.

"우리 매미들은 음악과 사랑을 위해
살아가거나 또는 허덕입니다."

매미 | www.memibooks.kr

게겐슈탈트 | www.gegenstalt.com



대한민국: 매미

ISBN 979-11-968395-2-9

독일: 게겐슈탈트

ISBN 978-3-9813156-6-0

값 45,000원